일천궁 농사 '도로아미타불'

외상 종자대 갚고 원가빼면 '빈손'

경북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한창 바쁘게 일천궁을 수확하던 손길을 잠시 멈추고 7~8명의 일꾼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 새참을 들고 있다.

『논농사 보다는 재미가 좋아 천궁을 심기 시작했는데 올해는 값이 떨어져 논농사만도 더 못해요』밭주인 이만권씨(60)의 말이다.

지난해는 3천5백평 밭에서 생근으로 3만2천근을 수확, 약 3천만원 가량의 소득을 보았는데 올해는 같은 평수에서 1만6천근도 안나온데다 값도 생것으로 6백원당 5백원대로 뚝 떨어져 1천만원 소득도 어렵게 됐다는 것.

『가뭄에다 연작피해를 입어선지 평당수확량이 작년에 절반수준밖에 안된다』는 이씨는 심어왔으니 수확은 하지만 외상으로 가져온 종자대와 농약·비료대 씨비닐 값 등을 제하고 나면 또 다시 빈손일게 뻔해 허탈하기만 하다.

부인 김정옥씨(50)는 『내년 농사를 지으려면 또 외상으로 가져오는 수 밖에 없는데 손해날 것 뻔히 알면서도 마땅한 대체작물도 없고 그렇다고 땅을 놀릴수도 없고 해서 그냥 심는 형편』이라고 털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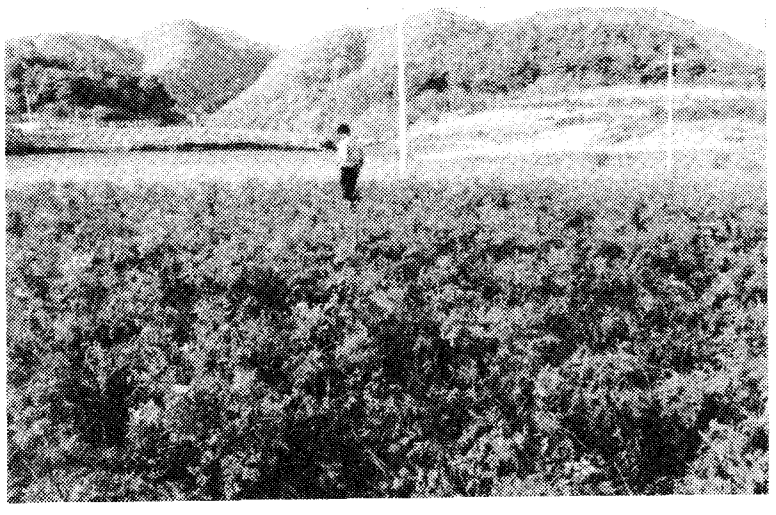
올봄은도가 주산지인 일천궁이 영양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것은 5~6년전부터. 현재 1천2백여 농가에서 7백여ha가 재배되고 있다.

일월면 곡강리 김상종씨(55)는 『고추농사보다 일손이 덜들고 평당수확량도 생근으로 7백원 이상이면 괜찮은 편이라 너도나도 다투어 재배하다 보니 예년보다 면적도 2배가량 늘고, 또 최근 제약사들에서의 엑기스 수입중가로 값이 폭락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시세가 맞지 않는다고 수확을 미루거나 팔지않고 그냥 놔둘수도 없다.

생근으로 보관해 둘 만한 저온저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가공할 만한 가공시설이 갖춰진 곳도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지금 당장 수확하지 않으면 그나마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상종씨는 『일천궁 재배농가들이 생산비라도 건질수 있도록 당국에서 대책을 세워줄 것』을 호소했다.



5년 농사이래 시세 "최악"

이 만 권씨(60)

지난 5년전부터 고추 보다는 일손이 덜 가는 대체작물로 일천궁을 재배해 왔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값이 폭락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일천궁 국내 소비량의 30%를 차지하는 제약회사들에서 최근 중국으로 부터 엑기스를 수입해 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이 재고로 쌓이게 되고 국내 과잉재배로 값이 떨어진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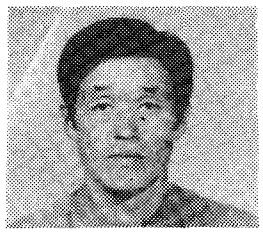
하한가인 근당 7백원(생것)에도 훨씬 못미치는 5백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

그러나 농가에서 직접 가공할 만한 시설이 거의 없는데다 일손도 부족해 손해보고라도 주로 밭떼기로 포 전거래하거나 수확하자 마자 밭에서 생근으로 중간상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천궁 심었던 밭에는 고추를 재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땅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내년농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이다.

인터뷰

정부 수매대책 "아쉽다"



박 철 규 생약협회 영양군 사무소장

올 한해 영양지역 일천궁 재배면적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연작피해와 가뭄영향으로 작황이 그리 좋지 않은 편이어서 평당 수확량은 예년보다 30~4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작황도 예년같지 않은데다 근당 4~5천원 하던 시세도 큰폭으로 떨어져 근당 2천1백~2천4백원을 형성하고 있고 2천1백원에도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세는 아직 햇것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전 시세로, 올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음을 감안, 햇것이 본격 출하되기 시작하면 값이 더욱 떨어질 것을 전망한 중간상인들이 갖고 있던 재고물량을 싼 값에 풀어놓아 형성된 가격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는 하나 생약재배농가 보호차원에서 생산동향을 파악 지도하는 전문관리기관의 부재와 정부의 적절한 수매대책이 아쉽다.

한약재 중금속 기준

보완대책 시급 지적

국정감사 이모저모

한약재 중금속 기준이 서서히 공신화 될 기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성재의원(국민회의)과 이재선의원(자민련)이 제출한 자료에서 제기됐다.

두 의원은 이 자료에서 93년과 94년 한약재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BHC가 대부분의 한약재에서 고르게 검출되는 경향을 보였고, 감초의 경우 기준치의 최근 3배까지 검출되었음은 물론 농약 알드린의 경우 인삼에서 기준치의 최고 11·5배 검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디엘드린의 경우 작약에서 기준치의 최고 2·9배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성재·이재선 의원은 일본과 몽고에서 들어온 우황과 사향에서 납성분이 10·5PPM 검출됐으나 한약재 총 중금속량인 30PPM만을 규정하고 개별 중금속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규제를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의원들은 △한약재 중금속에 대한 개별기준을 설정할 것 △한약재 혼합시 중금속 기준도 설정할 것 △잔류농약을 농산물에 적용하는 2백3종으로 확대할 것 △수입한약재에만 적용하는 잔류농약 검사대상을 (국내산으로)확대하고 △13종의 수입한약재만 적용하는 잔류농약 검사도 확대할 것 등을 주장했다.

인삼농축액 「맹독성농약」 검출

기준치 최고 23배…중국산 사용한듯

시판중인 인삼농축액중 7개사 제품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BHC, PCNB)성분이 허용기준치의 최고 23배까지 검출됐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내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윤철상의원(국민회의)은 16일 한국인삼협동조합중앙회 국감에서 『시판되는 11개사의 인삼농축액 제품을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해 독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의원에 따르면 △(주)고려인삼진흥식품의 「고려인삼농축액」을 BHC와 PCNB가 각각 기준치의 23배와 3배 △(주)동원고려인삼 △(주)고려인삼농수산 (주)동일산업의 「고려인삼농축액」과 (주)두승인삼의 「고려인삼정」을 BHC와 PCNB가 각각 기준치의 3~15배, 2~7배 검출됐다는 것.

BHC와 PCNB는 독성이 강한 살충제로 농약 성분이 물에 잘 씻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79년과 87년 각각 국내 사용이 금지됐다.

윤의원은 『이들 업체는 대부분 지난 94년 3월 보건복지부의 검사결과에서도 제품에서 농약이 검출돼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받았었다』며 『국내 생산 인삼은 조사결과 잔류 농약성분이 거의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들 업체가 값싼 중국산 인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